



제9회 자연공원학술세미나 參加記

洪 炯 玉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동안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인 도봉구 우의동 “호텔 그린파크”에서 제9회 자연공원 학술 세미나가 우리 한국 국립공원협회 주최로 개최됐다.

짧은 시간에 많은 주제를 다룬데다가 교수·박사 언론인등 해박한 전문지식인들의 고차원적인 주제 발표와 이에대한 코멘트가 나같은 문외한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었지만 듣고 있는 동안 아련하게나마 자연보호와 보존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됐다.

세미나의 목적이 복지사회를 향한 자연공원의 역할을 재확립하여 자연공원 보호운동의 확충을 기하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나의 이정도의 느낌만으로도 큰 효과가 아니겠는가. (中略)

인구가 늘어가면서 하늘도 오염되고 농약이없으면 농사를 짓지못하는 현실속에서 토양과 강이 오염되고 그래서 생태계는 알게 모르게 자꾸만 파괴되고 있다. 물방게가 없어지고 미꾸라지가 사라져 가고 논에 뛰놀던 메뚜기도 없어져 간다.

어쩌면 어스름 달밤에 개구리 소리도 기러기 나는 가을밤에 귀뚜라미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 얼마나 삭막해지랴. 그렇기 때문에 지정된 자연공원만은 꼭 자연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자연공원 내에서의 파괴행위 즉 오물을 버리고 방치해 둔다든가 나무가지를 꺾는다든가 하는 행위는 물론 불을 피워 밥을짓고 삼겹살을 구워 소주를 마시면서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하고 남이하는 짓고 수수방관 하지도 말아야 하겠다.

『영변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길음길을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웁소서……』 김소월의 이 애송되던 시귀이라해야 할판. 국립공원 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아름다운자연 경관이 파괴되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했다. 오솔길을 넓혀 신작로를 만들고 그위에 포장

도 요즘의 자연보호 측면에서는 지나친 감정 표현을 하고 그러기 위해 계곡을 무너뜨리고 시멘트 석축을 쌓았다. 경제적으로 얻는것과 환경적으로 잃은것 환경적으로 얻는것과 경제적으로 잃는것. 어느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모른다. (中略)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만큼 자연은 더빠른 속도로 훼손되어가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자연공원 보전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예를 들어 「국립공원과 환경 보전」 「인공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힘든 과제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탐방객 계도」라든가 「문화유적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등의 문제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의 역사는 지리산을 1호로해서 21년이 되었다. 그래서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7월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창설된 것이다. 현재의 관리공단은 과거 행정적 관료체제로부터 기업적인 봉사체제로 전환해서 현장 중심의 관리, 전문적인 관리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보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 즉 우리 오대산국립공원 지부와 같은 자원봉사 단체가 할일이 적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뭏든 우리는 자연정화운동에서 자연보존운동으로 차원을 높여 전개해야 하고 모든 탐방객들의 올바른 공원이용풍토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며 막연하게 국립공원에호만을 강조할것이 아니라 공원내의 모든 동식물 특히 천연 기념물 등의 생태를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고차원적인 조건에서 탐방할 수 있게 하고 건강한 휴식공간으로 또한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오대산 국립공원은 유희지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깨끗하고 조용한 국립공원으로 가꿔나가는데 우리모두 힘을 모아야겠다.

(筆者：本會五台山國立公園支部事務局長)